

전주문화특별시 시민연구모임 출범

문화·예술 전문가와 청년예술가 등 문화계 종사자 참여 특별법 마련 위한 핵심사업 발굴 본격적인 활동 돌입

전주시가 문화·예술 전문가와 청년예술가 등 문화계 종사자 등으로 전주 문화특별시 연구모임을 구성,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지난 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문화연구가와 문화예술분야 교수, 문화기획자, 문화시설 대표, 청년예술가, 행정, 언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9명의 시민연구모임을 발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의 성공적 추진

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건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됐다. 이후, 시는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세미나(4회)와 청년문화예술인 정책공감토크(1회)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 첫 시민연구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문화특별시 핵심사업 발굴과

특별법 마련을 위한 시민연구모임의 역할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모임은 현재 시가 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인 '2030전주문화비전 수립용역'의 전주문화특별시 핵심·세부사업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보완,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시는 이 모임과는 별도로 입법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특별법 연구모임을 구성, 법 마련을 위한 보완과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선5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문화특별시는 산업단지 등 특별한 맥

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근간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사업과 계획,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민연구모임 발족은 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된 전주의 강점인 전통문화를 발전시켜 국가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이 중심이 돼 지혜를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 완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전주시가 발급하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안전운전면허증 따서 기뻐요”

전주시, 완산초 자전거면허시험 응시한 13명 학생들 '전원합격'

전주 완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전주시가 발급하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전주시는 완산초등학교 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을 실시했다.

전주시의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은 자전거를 활발히 타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처음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에 도전하는 완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지난해에는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해 응시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 동안 연습을 통해 자전거를 익히고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은 사전에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등 자전거 이론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들이 △출발과 정지 △직진·S자 코스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 건너기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실제 주행하는 방식으로 실기평가 후 합격점 이상을 얻으면 된다.

이날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완산초등학교 13명의 어린이들은 시험이라는 긴장감과 안전운전면허증 취득이라는 기대감 속에 정해진 코스를 무사히 통과해 전원 합격하는 기쁨을 만끽했다.

어린이 안전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한 어린이는 "작년에 안전운전면허시험에 참여하지 못해 서운했는데 많이 연습해서 선생님께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라며 "안전운전면허증을 받게 되어 뿌듯하고 기쁘다. 배우고 시험 본대로 자전거를 타겠다"고 약속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독거노인·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9월말까지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건강수칙 철저 준수 당부

전주시가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오는 9월말까지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 여름은 지난 1일

남부지역에 이른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3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5,300가구를 대상으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 가정방문과 안부전화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

이다.

이와 함께 폭염대비 건강수칙 홍보용 부채를 제작·배포, 보건소 홈페이지(health.jonju.go.kr)에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게재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은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야외활동 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해야 한다

/송효철 기자

내 아이의 건강 첫걸음, 국가무료예방접종

전주시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병호)는 오는 29일까지 4주간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태전반에 대해 방문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 등 147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된 백신의 구비 여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준수 여부 △예방접종 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여부 △에진진사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이다.

또한, 백신관련 점검으로 △백신전용 냉장고 구비여부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설명여부 △기록보존 등도 살필 예정이다.

보건소는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탁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한편, 주요 점검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향후 재점검 등 사후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장병호 시 보건소장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접종을 실시하는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미접종자 관리 및 백신관리 등 예방접종 사업의 질을 높여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 가정대상 교육 실시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일 25명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혼자서도 당당하게!! 해피맘, 해피대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복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교육은 이해령 아인심리연구소장이 강사로 초청돼 CRR 색채분석법을 통해 현재의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탐색하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또한, 이날 함께 참여한 자녀들은 각자 나만을 위한 가방을 만들고 엄마 혹은 아빠에게 꽃바구니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혼자만의 고민이라 생각했던 일들을 참여자간 친밀감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위로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약국에서 절도행각 종업원 2명 입건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종업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8일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36·여)씨와 김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 3월9일 낮 12시 35분께 부안군 부안읍 A(47·여)씨의 약국에서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초부터 이날까지 20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완산구,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전주시 완산구는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9만 9,620건, 130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억원 감소한 수치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작년 대비 6,861건, 15억원 증가한 때문이다.

완산구 등록차량 중 총 4만 9,355대가 세액을 할인받아 올 한해의 자동차세를 연납하였으며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차량을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했다.

완산구에서는 납기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안내 전광판, 동주민센터 및 구청 공용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공동주택 구내방송, 플래카드·입간판·안내문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22일까지 납

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SMS 문자를 발송 및 유선안내를 통하여 납기내 징수를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1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2311)·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이번 달 납기가 지남에 따라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목촉기 등이 경과하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발생하니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